

바쿠야 고분(牧野古墳)

우마미(馬見) 구릉의 남단에서 복잡하게 파생하는 능선의 선단을 이용하여 축조된 대형 원분이다. 1957년에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마미가오카(真美ヶ丘) 뉴타운의 계획, 조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1968년에 분구 측량이 이루어진 후, 1983년부터 1984년에 걸쳐 분구 자락과 횡혈식석실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분구는 3단으로 축성되었고 지름48m이다. 하니와가 출토되었고 이음돌(葺石)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석실은 양수식(兩袖式)이고 전체 길이17.1m, 현실 길이6.7cm, 현실 폭3.3m이다. 오래전부터 입구가 노출돼 있었지만, 발굴조사에서는 응회암제 고발식(剝拔式) 가형(家形)석관, 응회암제 조합식(組合式) 가형석관 외에, 스에키, 하지키 등의 토기류, 재갈, 안장, 장니, 등자, 행엽, 운주, 십금구, 꽃잎 모양의 장식 금구 등의 금동장마구류, 은장식 대도, 녹각(鹿角)장식 대도, 창, 검, 축 등의 무기류, 도자 등의 공구류, 귀걸이, 은선(銀線)으로 이은 금동제 공옥(空玉), 유리제 구슬 등의 장신구류, 목심금동완 등이 발견되었다. 석실 폐쇄석의 바로 바깥쪽에서는 원통·집·방패·인물·동물 등의 하니와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의 최대 특질은 『연희식』에 서술된 야마토코쿠히로세군(大和国広瀬郡)에 소재하는 오시사카노히코히토노오에노미코(押坂彦人大兄皇子)의 「나라이노하카(成相墓)」인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점이다. 피장자를 특정할 수 있어서 분구나 석실 등의 유구, 출토유물은 역년대와 소속계층이 판명되는 드문 예이므로 고고학에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기준자료가 되고 있다.

오시사카노히코히토노오에노미코는 비다쓰(敏達) 천황의 황태자이고 사이메이(舒明) 천황의 아버지이지만 대왕위에 오르지 않는 않았다. 물년은 대략 사이메이가 태어난 해인 593년 이후인데 요메이(用明) 천황의 계승자인 우마야도노미코(厩戸皇子)를 위한 경제기반인 미부베(壬生部)가 설치된 607년 사이로 생각되고 있다.